

## 리마 COP20 결정문 <Lima Call for Climate Action>

-번역\_UNFCCC COP20 결정문 주요 내용

### □제20차 UNFCCC COP20 결정문 주요 합의사항

‘준비가 된’ 국가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예상치 등 각국의 기여(INDCs; **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**)를 2015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. 각국의 기여는 ‘현재의 감축행동을 넘어(beyond the current undertaking)’야 하며, 의향이 있는 국가는 향후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. 위의 사항은 UNFCCC 웹사이트에 공개된다. 개도국의 INDCs 제출은 2015년 6월까지로 예상된다.

–**누가 무엇을?** 우선 행동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부국들에 있지만,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. COP20 결정문에서는 2015 협정문(2015 Agreement)은 공통의 하지만 차별화 된 책임의 원칙(**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**)을 기초로 하지만, ‘각국의 역량에 비추어(in light of respective capabilities)’ 마련될 것이라고 쓰고 있다. 이는 미국과 중국은 모두 만족한 내용이며, 바호레인, 카타르, 사우디아라비아, 싱가포르 등 높은 국민 1인당 GDP가 높은 국가가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.

–**선결 정보(14항).** 각국이 INDCs를 제출할 때 사용할 데이터, 분석, 방법론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. 예를 들어, 탄소 배출권(offsets)수치가 포함되는지, 배출 감축이 예상되는 분야 등이다. 기준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목록도 포함되었지만 인도와 중국의 요구로 “포함해야 한다(shall include)”에서 “포함할 수 있다(may include)”로 문구가 변경되었다. EU

관계자들은 모든 G20 국가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G20국가가 각국의 기후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고 확신하나, 의무사항은 아니다.

–**각국 기여(contributions) 평가.** 이 부분은 수정되기 전 결정문보다 약간 약화된 분야이다. 합의된 내용은 UN이 INDCs의 “**종합적 효과(aggregate effect)**”에 대한 종합보고서(synthesis report)를 2015 파리 COP21 개최 한 달 이전인 11월 1일까지 준비한다는 것이다. 종합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할지는 명확하진 않지만, UN환경계획(UNEP)이 매년 비슷한 시기에 ‘배출량 간극보고서(The Emission Gap Report)’를 발표하고 있어 이를 참고하면 종합보고서를 예측할 수 있을 듯하다.

–**손실과 피해(Loss and damage).** 개발도상국의 요구로 이번 결정문 서문에 들어간 내용이다. 여전히 이 이슈가 논의되고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. 기후 보상(climate compensation) 메커니즘 개발을 위한 UN 노력은 2016년 검토가 시작될 예정이다.

\*(COP20 서문 발췌) COP19에서 결정한 “손실과 피해에 대한 바르샤바 메커니즘”을 상기하며, COP20에서 동 메커니즘 집행과 관련한 논의진전을 환영

–**재정.** COP20 결정문은 선진국이 “강화된” 금융지원을 개도국 특히, 극심한 기후 현상에 취약한 국가에 제공할 것을 “촉구”한다. 또한 멕시코, 페루, 파나마, 몽골을 비롯해 녹색기후기금(GCF)에 재정기여를 약속한 개발도상국의 지원의 “인정(recognize)”한다. 하지만 결정문은 그 이상을 언급하지 않으며,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약속된 개도국 녹색 투자 명목의 1천억 달러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.

## □협상 초안문을 위한 주요요소(elements)

-내년 파리에서 합의문의 기초가 될 선택안을 담은 37페이지에 달하는 목록이 이번 **결정문의 부속서**로 포함되었다. 이번 부속서에는 2050년 탄소 배출량 “순 0(netzero)” 목표에서부터 “가능한 한 빨리” 온실가스 배출량 피크 달성을 촉구하는 문안까지 여러 옵션이 담겨있다.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원유에 대한 세금,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채권을 다루는 국제기관을 설립하는 안 또한 들어있다.

### ○ 장기재원

-옅저버들에게는 “약한”것으로 비춰진 협상 초안문에서 장기재원 분야는 별 진전이 없었다. 초안은 선진국이 더 많은 공적 자금을 적용 기구에 제공할 것을 “더욱 촉구”하며 모든 당사국이 기후재정 “조성을 돕는 환경”을 더욱 투명하고 열린 형식으로 만들기를 요구하고 있다. 하지만 그에 따라 추가 금액이 나오지는 않았다.

### ○ 교육과 의식제고

- 이번 COP20에서 새롭게 제안되었으며, 정부가 “기후변화 이슈를 커리큘럼에 통합하는 교육전략 개발”하기를 독려하고 있다. 각국의 국가 개발전략에 “의식제고”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하다.

### ○ 도시와 지역

- UNFCCC는 기후행동 ‘비-국가 행위자 존(non-state actor zone)’인 ‘나즈카(Nazca)’라는 포털(<http://climateaction.unfccc.int/>)을 개설했다. 아직 초기이지만, 기업, 도시, 시민사회가 자신의 기후행동 방안을 제출함으로써, 이 포털이 소중한 데이터 소스로 거듭나 2015파리 협정의 작은 요소가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있다.

※출처 = <http://www.rtcc.org/2014/12/15/lima-call-for-climate-action-what-was-decided/>